

## 제12회 아시아 산업보건학회 참관보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노재훈

현지 항공편의 예약이 취소된 관계로 11월14일에 출발하려던 금번 학회 참석 일정은 사흘이 지난 11월 17일 오후 1시 태국 항공편을 이용하여 김포비행장을 이륙한 후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김포 출발이 세시간 지연된 관계로 방콕에서 봄베이로의 환승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조규상 회장님을 단장으로 한 우리 일행은 앞으로의 여행에 대해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방콕에서 밤 10시에 스위스 항공편을 이용하여 낡은 공항 청사와 천장에 매달아 놓은 구식 선풍기의 후덥지근한 열대의 공기를 머리에 접하면서 봄베이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11월 18일 새벽 1시였다.

카이키색 제복을 입은 검은 얼굴의 공항 세관원의 간단한 입국절차를 마친후 봄베이 여행사의 냉방 장치가 안된 낡은 버스를 타고 새벽의

봄베이 시내를 질주하였다. 가로등이 띄엄띄엄 켜있고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과 얼룩이 낀 건물의 봄베이의 첫인상은 마치 20년전의 청계천 부근의 풍경이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까 생각하며 회의 개최 장소인 타지마할 호텔에 도착하였다. 영국인이 1903년에 인도에 첫번째로 건설한 현대식 호텔인 타지 마할은 유럽의 성을 연상하게 할 만큼 웅장하였다.

정오가 되어서야 잠이 깬 우리 일행은 양고기와 풀기없는 쌀을 주재료로 만든 인도 음식으로 요기를 하고 현지 외환의 부족한 사정으로 인해 인도 화폐인 루피로 등록비 납부를 고집하는 학회관계자와 가벼운 실랑이를 한 후 등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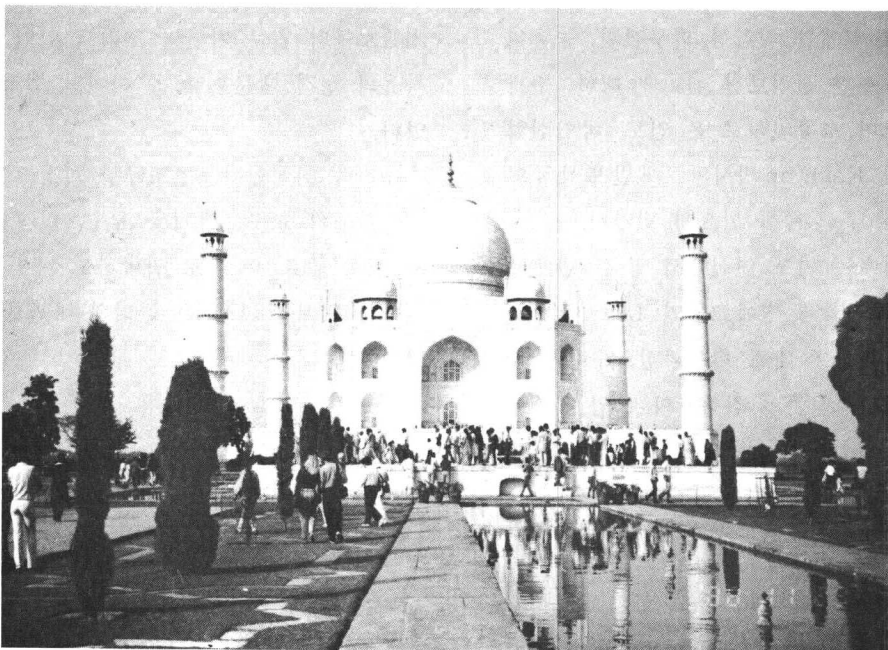
참석인원 500명중 대부분이 인도인 참석자이며 외국인으로는 우리나라 일행 25명과 일본인

일행 30명 그외 싱가포르, 태국, 중국, 미국, 영국, 호주에서 약간명이 참석하여 마지 인도 국내 산업보건학회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학술대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에 걸쳐 오전 9시부터 5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특별강연 그리고 분과별 연제 발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9일 첫 기조연설은 신시내티 대학 Kettering 연구소의 Suskind 교수가 피부독성 반응이란 주제로 직업성 피부 질환의 원인 물질, 발생기전, 증상 및 병리소견에 관해 자세히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초청연자로 일본 구마모토대학 의학 유전학 연구소장인 하라다 교수가 일본의 직업 및 환경 중독에 대해 일산화 탄소 중독, 이황화탄소 중독, 미나마타병 등을 중심으로 발생현황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의 산업보건학과의 Murray 교수가 석면폐증에 대해 특강하였다.

분과 학회의 주제는 광부의 건강과 안전, 근로 여성의 건강, 중금속 중독, 유해화학물질 관리, 연소근로자, 직업성 암, 작업 스트레스와 인간 공학, 산업위생, 직업성 피부질환, 농촌위생, 직업성 폐질환, 산업보건 조직 및 관리, 산업보건 교육, 직업성 질환의 역학, 산업재해, 산업보건 간호 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대회 첫째날 가톨릭 의대의 윤임중 교수가 석탄광부 진폐증의 유병율과 분진 농도에 관한 역학조사라는 제목으로 광부의 건강과 안전 분과 학회에서 발표하여 좋은 반응과 진지한 토의를 가졌으며, 연세원주의대의 차봉석 교수는 19일 오후에 산업 정신 보건분과에서 진폐환자와 산재환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발표하였다. 고려의대 차철환 교수와 염용태 교수는 이황화탄소 취급근로자의 말초신경염 사례와 형광등 제조 공장 근로자의 수은 중독 사례에 대해 발표하여 많은 질문과 토론을 벌였다. 이어서 인제의대의 이채언 교수의 뇨중 마노산 배설



인도 아그라의 타지 마할

에 관한 논문과 연세의대의 벤젠과 톨루엔의 세포학적 독성에 관한 연제 발표가 있어 한국측 참가자는 대부분 학회전반부에 논문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학회 이틀째인 20일에는 기초 연설에서 국제 노동기구의 Kogi 박사가 인간공학의 산업보건 분야 적용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연소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해 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3편의 직업성 암에 대한 연제 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인도 산업공학 및 교육 연구소에 계신 Ramani 박사가 유해 요인 분석과 안전, 일본 츠크바 대학의 야마구치 교수의 만성 호흡기 질환의 위험요인, El Batawi 교수의 개발도상국의 직업성 질환에 관한 초청강연이 있었으며 이어서 물리적 유해요인에 관한 분과 연제가 있었으며, 이 분야에서는 연세 원주의대의 이명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진동장해에서는 7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는데 그중 5편을 일본측에서 발표하여 이 분야에서 단연 선두주자임을 과시하였다.

세째날인 21일에는 직업성 피부질환, 농촌위생, 직업성 폐질환 산업보건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초청연사로 온 인도 국립산업보건 연구소의 Kashyap 박사의 개발도상국의 살충제 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학회 나흘째에는 기초 연설에서 영국 만체스터 대학 산업보건학과 명예교수인 Lee 박사의 산업의학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과정, 수련의 과정, 전문의 과정, 전문의 취득후의 산업으로써

활동 과정의 4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문제점을 제기 하였다.

산업보건 인력교육, 산업재해, 산업보건 간호, 직업성 질환의 역학의 분과별 연제 발표를 마지막으로 1991년 북경에서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고 나흘간의 제 12차 아시아 산업보건 학회의 막을 내렸다.

우리측 연제 발표는 과거의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환에 관한 연제 발표로부터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발표하여 산업발달에 따른 변화를 실감하였으나, 여성근로자, 직업성 암, 인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연제발표가 없어 못내 아쉬웠다.

이번 학회에서는 Suskind, Lee, Murray, Batawi 교수 등 산업보건학계의 석학이 초청강연과 연제를 발표하였으나, 분과학회의 연제는 대부분 인도 학자들의 발표여서 한국과 일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학회 진행에서도 국외 참석자와 국내 참석자간의 학회 등록비에 있어서도 많은 격차를 두어 참석자들로부터 일부 비난의 소리도 있었으며, 그들 특유의 성격 때문으로 꼭 짜여진 일정은 아니었다.

우리측 참석인원 중 조규상 회장, 이승환 교수, 김두희 교수, 배기택 교수, 이채언 교수 등은 학회 종료 후 바로 귀국하고 나머지 차철환 교수를 위시한 12명은 델리와 네팔을 향해 출발하였다.

